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4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2동 서암관 2층 로비

1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축사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서울법대 이야기
김재형 교수 • 민법 개정, 현대화를 향한 여정
김웅재 교수 • '주육야독(晝育夜讀)'의 한 학기
김범준 교수 • 법무법인, 대법원, 그리고 학교
이혜민 교수 • 실무와 학문을 잇는 길
조혜수 겸임교수 • 판사의 길을 고민한다면
공익법률센터 류다솔, 이제호 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들에게 듣는 공익 진로
16기 김예은, 김혜진, 박경린, 임수현, 정인희 • 우승 팀을 만나다: 제6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준비기
17기 이동은, 정연우, 오은결 • 우승 팀을 만나다: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17기 곽한별, 이동은, 이은세, 홍윤아 • 공익인권법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인권법단체 활동기
17기 김기완 • 동계공익법무실습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활동 인터뷰
16기 홍제헌 • 학위논문, 로스쿨생도 쓸 수 있다

14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16 연구소 · 센터 소식

19 릴레이 도서 추천

20 기금 안내
SNU Law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 안내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5. 9. 1. — 2026. 2. 28.
예우 안내

정의의 종 43호
발행인. 이재민 원장
편집인. 공두현 학생부원장
기획 및 취재. 김나혜 김선우 성승현 학생기자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마음의 여유가 피워낼 결실

친애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8기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월 초, 강촌에서 열린 '새내기 새로배움터' 이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당시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며 나누었던 담소와, 조별 활동을 통해 보여준 활기찬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선합니다. 학생부원장님을 통해 들은 신입생 여러분의 열정적인 분위기는 저에게도 큰 기대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식 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신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강용현 서울법대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현재 문화관 재건축 공사로 인해 장소가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최종길 홀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도 너그러운 양해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 입학한 152명의 신입생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여러분이 이제 법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에서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긴장감도 크겠지만, 차분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다면 우리 대학원에서의 생활을 훌륭히 완수해 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십시오. 아마 모든 분들이 앞으로의 3년은 학업과 교과 활동으로 분주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매 순간을 유익하게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에 자만하지 않고 힘든 일에 좌절하지 않는, 마치 설산이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차분한 마음가짐이 훌륭한 법조인의 덕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쟁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마십시오. 성적과 성취에 대한 압박이 여러분을 단기적인 승부에 매몰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길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정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향후 3년을 평생의 법학 연마를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로 삼아 주십시오.

셋째,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십시오. 옆자리의 학우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료입니다. 25세 청년의 평균 수명이 85세에 달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향후 60년 이상을 법조계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원우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책임감과 배려심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교는 여러분이 최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59분의 교수님과 40분의 행정직원 모두가 지도와 지원에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험난할지라도, 곁에 있는 동료와 스승들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비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탄탄히 쌓아, 훗날 우리 사회를 밝히는 훌륭한 법조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며, 오늘 여러분이 품은 원대한 포부와 소망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2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 재 민

민법 개정, 현대화를 향한 여정

김 재 형 교 수

지난 2025년 12월 18일,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민법 개정위원회는 1958년 제정 이후 부분적 개정만을 거쳐온 민법을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 김재형 교수를 만나 이번 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이번 민법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김재형 교수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세 번째 민법 개정위원회의 결과물임을 설명했다. 첫 번째 개정위원회는 1999년에 구성되어 2004년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두 번째는 2009년에 구성되어 2014년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성년후견, 보증채무, 여행계약에 관한 부분 등 개정안 일부만이 통과되었다. 김재형 교수는 "이번에는 민법을 현대화하고,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민법안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히며, '첫 번째 단계로 계약법에 관한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현재는 담보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 교수는 민법 개정위원회 내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예비 초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Q. 민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김재형 교수는 계약법 개정안의 핵심 변화 가운데 네 가지를 설명하였다. 계약법 개정안에서는 첫째,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기존에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되어 요건과 효과가 불분명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의 해제, 해지뿐만 아니라 수정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변동이율제를 채택하였다. 연 5%로 고정되어 있던 민사이율을 경제상황과 금리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셋째,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계약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다. 영미 판례에서 발전한 법리로, 사기·강박·착오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매도인의 담보책임 체계를 정비하였다.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를 구분하여 하자의 개념과 책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손해배상, 계약해제, 대금 감액, 추완청구권 등 각각의 구제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관계도 명확히 하였다. 이 외에도 대상청구권 신설, 지출비용 규정 도입, 강행법규 위반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었다.

김재형 교수는 추후 발표될 담보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부동산 유치권 폐지 여부, 소유자 저당권 도입, 근저당권 규정 확충, 가등기담보법 개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양도담보 규정 신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월 중 담보법에 관한 검토위원회 검토의견을 확정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계약법보다 현재의 법리를 수정하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Q. 민법 개정안이 실무와 학계에 미칠 영향

김재형 교수는 개정안이 실무와 학계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 교수는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규정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면서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판례를 성문화한 경우에도 실정법적 근거가 생김으로써 해당 규정의 적용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도 명문화됨으로써 좀 더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논의의 평면이 달라질 전망이다. 김재형 교수는 '학설로만 논의되던 부분들이 명문화되면서, 근거 탐색이나 요건 설정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Q. 법학도들이 주목해야 할 점

김재형 교수는 계약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서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 교수는 '민법 개정안에서 다룬 내용은 현재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것은 현행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승현 학생기자

'주육야독(晝育夜讀)'의 한 학기

연구학기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면서도, 일상과 역할이 더 또렷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특히 육아라는 또 하나의 소임이 더해지면 그 시간이 더욱 촘촘해지고, 몰입의 방식도 달라진다. 지난 2학기 이를 몸소 겪으신 김웅재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 학기의 경험과 이번 학기 복귀를 앞둔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보았다.

간단한 근황과 함께 학교로 복귀하시는 소감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25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연구학기를 받았습니다. 외국에 나가거나 하지는 않고 국내에 머물렀습니다만, 강의가 없다 보니 학교 연구실에는 아무래도 나가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강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 따라오는 채점 부담이 없어서 분명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구학기라고 해서 강의 외의 학교 업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통상의 학기와 비슷한 점도 많았던 것 같네요.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느라 그야말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가장 크게 와닿는 소감이고, 한편 학교에 돌아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는 게 그 다음입니다.

연구학기 동안에는 어떤 학술 활동을 수행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채용비리 내지 부정채용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짧은 논문을 한 편 썼고, 기망행위로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논문도 한 편 썼습니다. 그 외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특정 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노력을 외국에 소개하는 글도 쓰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전문법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내용을 손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전부터 사기죄, 그중에서도 특히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간 박사논문을 핑계로 본격적인 연구를 미뤄 두고 있었는데, 이번 연구학기를 통해 미뤄둔 연구에 조금이나마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연구학기 기간 동안 병행하신 육아라는 경험이 교수님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육아는 제 일상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아는 그야말로 상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전일제 근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저는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서툴고,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긴 호흡으로 이것저것 들여다 봐야 일이 뭐라도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탓에 그간은 사실상 '육퇴', 즉 밤에 아이들이 잠들고 육아로부터 '퇴근'한 이후에야 연구든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 육아하고 밤에 책읽는, 주육야독(晝育夜讀)의 삶이었어요. 이제 3월에 복귀하면 이런 생활패턴도 또 바뀌겠지만, 육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이 되리라는 점만은 분명할 것 같네요.

김 웅 재 교 수

이번 학기에 수업이나 학생들과의 만남에 대해 특히 기대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기대됩니다. 연구학기의 최대 단점이 학생들 볼 일이 없었다는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교에 온 이래로 매 학기 한두 번씩은 지도반 학생들이나 강의 수강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했었는데, 지난 학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도반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다시 예년처럼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구성원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한 마디 전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언제 떠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금방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만큼 금방 학교에서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새로 만나게 될 분들이나 다시 만나는 분들 모두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나혜 학생기자

법무법인, 대법원, 그리고 학교

김 범 준 교 수

김범준 교수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율촌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1년 서울시립대에서 세법 교수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작년 2학기 처음 본교 법전원에 합류한 김범준 교수에게 교수의 삶과 세법학자로서의 이야기를 함께 물었다.

1. 학교로 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법무법인(유한) 율촌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율촌에서 하였던 주요 업무는 조세에 관한 자문·송무였습니다. 그 밖에 M&A 및 국내외 투자거래 자문과 민형사 소송도 맡았습니다. 율촌에서 11년 넘게 일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으로 조세 사건 검토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법을 가르쳤으며, 2025년 2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셨는데, 교수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율촌과 대법원에서 쌓은 경험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실관계의 틀 안에서 법령의 해석을 다룬다는 한계가 있었고, 해석으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3. 세법은 중요도에 비해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지는 않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법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세법의 재미를 말하기에 앞서 세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회계학을 알아야 세법을 배울 수 있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아니면 조세 분야에서 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도 '법' 제도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세법 해석방법은 민사법·공법·형사법의 해석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모르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조세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법과 민사법/공법/형사법의 관계를 알면, 세법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민사법에서 여러 거래를 배웁니다. 경제 주체들은 거래에서 소득을 얻지요. 예컨대 누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이, 소비대차를 하면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이러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민사법의 여러 법률행위들이 세법에서는 '요건사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편 납세의무 이행의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므로, 조세법률관계는 공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를테면 경제 주체가 납세의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과세) '처분'을 하지요. 과세처분도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처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공법 제도는 조세행정의 뼈대입니다. 예컨대 공법의 적법절차 원칙 또는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례는 조세행정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을 소송물로 삼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조세소송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민사법·형사법·공법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세법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민사법·형사법·공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기도 하지요. 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세법 조문을 검토하여야 할 뿐 아니라, 민사법·형사법·공법의 시각에서 체계적 정합성 또는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법의 매력 또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4. 첫 학기를 보내신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

직장을 옮긴 첫 학기라서 조금 바빴습니다. 여러 행정 절차에 익숙해져야 했고, 지도반 학생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인세와 주주 과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희망 진로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많이 배우고 적응해야겠지만, 2026년 1학기에는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5.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보내고 싶은 말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변호사시험의 부담을 가볍게 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여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더욱 훌륭한 법조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선우 학생기자

실무와 학문을 잇는 길

이 혜 민 교 수

이혜민 교수님은 법원 근무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서울대에 부임해 교수로서의 여정을 출발하였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교수님으로부터 법원에서의 경험과 학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임 후의 소회를 두루 들어보았다.

교수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모교에 상법 교수로 부임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법원에서의 시간이 참 행복했기 때문에 저에게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2009년 임관하여 법원에서 판사로 16년 반을 근무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파견 등 다양한 법원과 보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수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학문의 길에 대한 동경, 교수님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 탐구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평생 배우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 큰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히 관심을 두고 계신 연구 분야나 주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회사법, 금융법 등은 상법의 기본기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 외 세부 분야에서는 국제상거래와 중재 등 국제적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제기구(HCCH) 파견 경험이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 관련 작업반 자문교수(대표단), 국가특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적 논의 흐름을 접하고 있는 점도 연구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다른 주요 관심 분야는 해상법과 보험법입니다. 이 분야들은 계약법과 규제법, 국제거래와 금융 등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이론과 실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상사조에서 해상·보험 사건들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업도산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파산 및 국제도산 전담부에 근무하며 직접 기업 도산절차를 관리해 본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담당하고 계신 강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난 학기에는 일반대학원에서 「국제상사법 연구」 과목을 개설하여 상사 국제규범의 형성과 발전, 국제중재와 같은 분쟁해결 절차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처음으로 법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상법」을 개설합니다. 저로서는 첫 로스쿨 과목이고, 몇 학기 동안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기에 학생들과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설렙니다. 조만간 보험법 관련 과목도 개설해보고자 합니다.

학생 시절과 교수로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신 지금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점이 궁금합니다.

몇몇 행사나 지도반 모임 등을 통해 만난 로스쿨 학생들을 통해 저의 예전 대학 시절보다 학생들이 더 성숙하고, 자기관리에 더 철저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끼리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격려하고 즐거운 일을 만드는 모습들도 인상적이고요. 학교 인프라도 보다 좋아졌고,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하시고, 학생들의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모교로 돌아올 수 있어서 영광이고, 이렇게 학교에서 젊고 뛰어난 미래의 인재들의 성장을 목격하고 또 조력하게 된 것이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선배 법조인으로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조 시장은 점차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AI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아마 로스쿨 학생들로서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쟁에서 한번도 실패해오지 않은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기에 구성원으로서 그 경쟁의 관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로서는 지금 누리게 된 특권을 자각하고 불안보다는 여유를 가지면서, 안전한 성공보다 조금은 더 탐색적이고 모험적인 생각들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학생 때 시도해 본 작은 경험, 작은 인연들이 어쩌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관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나혜 학생기자

판사의 길을 고민한다면

조혜수 겸임교수

학업에 매진하는 동시에 장차 어떤 법조인의 길을 걸을지 깊이 고민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판사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고자, 현재 우리 로스쿨에서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혜수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께서는 법원 안팎의 경험과 학생들을 향한 조언을 들려주셨다.

먼저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 조혜수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3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5년에 사법연수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두 학기 동안 서울대에서 강의하시며 느끼신 소감도 간략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법학도로 수업을 듣던 강의실에서 지난 2학기 동안 법원 업무의 기초인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를 강의하면서 미래의 법조인이 되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접하고 보람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 판사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헌법 제10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이러한 헌법·법률·양심에의 기속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관의 기본적인 역할이 저의 개인적인 추구나 지향과 부합하여 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시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하게 어떠한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한 사건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어떤 학생들에게 가장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판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소양이나 성격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법학실력과 법학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꼼꼼하고 치열하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편견 없는 태도로 사건과 법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판사로서의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재판연구원 및 신임법관 교육, 그리고 실제 업무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라는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법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법원 실무수습과정을 통해서 법원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것이 판사로서의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나혜 학생기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들에게 듣는 공익 진로

공익법률센터 류다솔, 이제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지도변호사로 재직 중인 이제호 변호사와 류다솔 변호사를 만났다. 공익변호사로 살아온 여정, 센터에서의 활동, 그리고 공익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공익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

이제호 (이하 이): 교육이나 사회참여활동에 관심이 있었어요. 변호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연히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일반 법무법인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 역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나답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류다솔 (이하 류): 학부 시절 조영래 변호사님 관련 책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내가 저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재단법인 동천에서 인턴을 하고, 장애인법연구회, 헌법재판소 사무처를 거쳐 네덜란드에서 국제인권법 LLM을 마쳤습니다. 귀국 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유엔인권기구 대응 등을 했고, 이 내용을 학교에서 많이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익법률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Q. 공익법률센터에서의 주요 활동과 보람

이: 공익법 교육과 공익 진로 관련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공익법률센터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로스쿨생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로스쿨 다닐 때 다양한 길이 있는데도 거기에 갇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작은 정보 하나라도 공유했을 때,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류: 임상법학 리걸클리닉 수업 지원과 대외협력, 법률구조, 법률상담 등을 주로 맡고 있어요. 학생들과 자주 만나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 짧은 만남에서도 주고받는 대화가 이곳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분들을 연사로 초청하거나, 동계공익법무실습 기관을 연결할 때 기관 측에서 '서울대가 이런 것 해서 정말 좋다'는 반응을 들으면 중간 매개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Q. 공익법률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극복 방법

류: 편견 어린 시선을 마주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한 극복 방법이 있다기보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분들과 어울리다 보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익법률활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해요. 일반 변호사처럼 전문 분야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공익 전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점에서 부담감과 막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꼭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공익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로스쿨 다닐 때 막연했고, 선배들의 카더라만 전해 듣고 지금 당장 컨펌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 큰일은 안 나더라고요.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를 솔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하면 다양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익변호사는 어떤 직장에 가느냐보다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길이거든요. 사회적 취약층 피해구조를 하고 싶은 분, 구조적인 변화를 원하는 분, 개인 권리구제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법률홈닥터, 피해자 국선전담, 인권감수성 높은 검사가 되는 것도 모두 넓은 의미의 공익활동이에요.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다 보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공익진로 가이드북도 2월 말에 개정판이 나왔으니 참고해 보세요.

법학전문대학원 성승현 학생기자

우승 팀을 만나다:

제6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준비기

16기 정인희, 박경린, 김예은, 김혜진, 임수현

팀이 맡은 역할과 준비한 주장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수현: 검사 역할을 맡아, 방 안에 초를 켜둔 채로 만취한 피해자를 두고 외출한 피고인들에게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① 과실범에도 공동정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으며 ② 피고인들에게 화재를 방지해야 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③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측의 변론에 대비하여 각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부작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론이 같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혜진: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마음을 상상과 논리로 채워 넣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형법 교과서와 논문들을 찾아 팀원들과 여러 차례 읽으면서 논리와 표현을 엄밀하게 다듬으려고 했습니다. 우선 빨리 초안을 쓴 뒤, 댓글로 서로 수정사항을 나누고 재논의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팀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인희: 성실함과 팀워크였다고 생각해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주제를 돌아가며 각자 깊게 조사하고 공유했는데요. 서로가 해놓은 조사 위에 겹겹이 쌓아가며, 충실히 논의하고 보완하니 논의가 점점 정확하고 풍부해질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회의'가 핵심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5명의 글을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듯한 매끄러운 서면으로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또 겉보기엔 단순해보이는 쟁점도 파고들다 보면 의견이 크게 갈리기도 해서, 늘 회의를 시작하면 모두가 논의에 한창 심취해 매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나곤 했어요. 모두가 골고루 질의응답에 참여한 점도 교수님들께 좋은 인상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린: 저희 팀은 단순한 자료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각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소통을 지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간과했던 쟁점을 재발견하고, 생소한 판결례들을 공유하며 논증의 층위를 한층 두텁게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빛났던 것은 팀원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지치는 순간도 많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기보다 서로를 북돋우며 에너지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러한 동고동락의 시간은 대회 당일, 서로의 눈빛과 표정만 보아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긴밀한 사고의 공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혜진: 법학 지식을 실제 서면에 담아내는 과정이 까다로우면서도 재밌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들이 하나의 정돈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배치하고 다듬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논의하며 돌파구를 찾아가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법률가로서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수현: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송무는 법리를 하나하나 꿰어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링에 가까웠습니다. 맡은 입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존의 판례를 무기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논리를 고안하기도 하면서 일관된 서사를 주도적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 무척 흥미롭고 보람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의법정대회를 준비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은: 학기 공부와의 병행이 걱정되어 도전에 주저하시는 후배님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의법정 참여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모의법정을 준비한 덕분에, 조금은 흐지부지 지나갈 수도 있는 2학년 2학기에도 오히려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승의 결실을 맺은 직후 팀원들과 편의점에서 소박한 뒤풀이를 하였는데, 이는 2025년의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소중한 팀원분들과 추억을 쌓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나혜 학생기자

우승 팀을 만나다: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17기 이동은, 정연우, 오은결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 부문에서 가인상을 수상한 오은결, 이동은, 정연우 팀을 만났다. 법학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치열한 서면 작업과 구두변론을 준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대회 준비 과정

예선 공고 이후 처음에는 출제의 바탕이 된 판례를 추적하고, 핵심 쟁점을 선별하여 서면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 후, 쟁점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서면을 작성한 뒤, 함께 반복하여 읽어보며 다듬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본인의 글에서는 보지 못하는 허점이 반드시 존재하기에, 팀원끼리 서로의 결과물을 끊임없이 크로스체킹하며 누락된 쟁점을 찾아내고 논증을 보완하는 과정이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선 진출 후에는 약 한 달 동안 본선 및 결선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서면 제출 후 상대 팀 서면을 교차송달받은 뒤에는 우선 모두가 상대 팀 논리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장 효과적인 반론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변론의 경우,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면의 핵심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본선 당일 경험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결선의 경우, 변론이 시작되기 단 45분 전에 '추가된 사실관계'를 제공받습니다. 법전과 교수저 한 권에만 의지해서 추가된 사실관계를 풀어내고, 상대 팀 서면을 분석하고, 구두변론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45분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본선에서는 피고 측을 대리했었는데 결선에서는 갑작스럽게 원고 측을 대리하게 되었고, 추가된 사실관계의 주요 내용이 아직 배워본 적 없는 '전세권부 채권의 가압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명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상대 팀 서면 분석을, 나머지 1명은 새로운 사실관계 풀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차분히 변론을 준비하고 결국 만족스러운 변론을 해냈을 때 큰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우승 비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포인트

팀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의 의견을 가감 없이 비판했던 점이 팀의 큰 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질문과 비판을 수용하고 이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하는 것이 곧 팀 전체를 위한 길이라는 믿음이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선명히 하기보다는 모든 쟁점을 팀 전체가 함께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내부 토론 덕분에 재판부의 기습적인 질문이나 상대 팀의 변칙적인 반박에도 당황하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에 의존하기보다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호흡한 점이 변론의 흐름을 주도하며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Q. 법정변론 경험이 법학 공부에 미친 영향

로스쿨에서 법을 배우다 보면 복잡한 조문과 판례, 학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회에서 가공의 '사건'을 마주하고 직접 당사자를 대변하는 '서면'을 작성하면서, '살아 숨 쉬는 법'이 어떤 모습인지를 짧게나마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의 결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판시가 도출된 논증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사안에 능동적으로 적용해 보려는 입체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느 당사자의 시각에서 재구성되는지에 따라 그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하였고, 사안을 추상적인 법리로 환원하기에 앞서 그 속에 놓인 구체적 사정과 맥락을 신중히 살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참가할 후배들에게

최종 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 기록을 반복해서 살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논리를 완전히 수정하거나 서면을 갈아엎는 과정을 주저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팀 역시 예선과 본선을 거치며 주요 쟁점의 골자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승현 학생기자

공익인권법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인권법단체 활동기

각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특성화 분야'가 있다. 서울대학교 법전원은 기업금융법, 국제법과 함께 공익인권법을 특성화 분야로 강조한다. 강의실 밖에서도 학생들은 관련 분야 단체를 꾸려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르고 있다. 대표적인 공익법단체인 공익과인권, 노동법학회, 인권법학회, 프로보노의 새로운 대표들에게 공익법단체 활동에 대해 물었다.

Q. 어떤 단체를 이끌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린다.

이동은: 〈공익과 인권〉 제26호 편집위원회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익과 인권〉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공익법률센터, 저희 편집위원회가 공동발간하는 학생주도형 학술저널로서, 공익·인권 분야에 뜻이 있는 전국의 연구자와 활동가를 위한 기고처입니다.

곽한별: 노동법학회는 인권법학회 소모임 '산업재해노동자들과 소통하는 모임: 산소통'이 분리·독립하여 설립된 학회로서, 현재는 비정규직, 이주노동,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노동법에 대한 여러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은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이하 인권법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법학회는 사회와 인간, 인간의 권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법학이라는 도구로 구체화하여 실천적 결실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단체입니다.

홍윤아: 현재 서울대학교 로스쿨 봉사동아리 '프로보노'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로보노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재능나눔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모임입니다. 로스쿨생으로서 아직 직접적 법률지원은 어렵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 책임감을 기억하며, 예비 법조인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Q. 본인이 이끌고 있는 단체의 대표를 맡은 이유는?

이동은: 분주한 로스쿨 생활 속에서도 편집위원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항상 크고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법과 세상의 간극을 고민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이 계속 이어지도록 힘을 싣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노동·장애·젠더·환경 등 서로 교차하는 수많은 의제를 넘나들며 한 권의 학술지를 엮어내는 작업에도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곽한별: 출근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품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법학회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은세: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로스쿨 입학 전부터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관심과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싶다는 마음에서 인권법학회에 들어갔습니다. 인권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이 공간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대표를 맡겠다고 생각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쁜 날들이 이어지는 로스쿨에서 인권과 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소중했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홍윤아: 방학 중 프로보노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연계하여 서울시 내 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준비 법률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법률 지식이 단순한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학회 중에서도 프로보노는 단순한 학술 활동을 넘어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실천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느꼈고, 이에 따라 학회장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Q. 각 단체의 활동방향, 공익 관련 단체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생각이 궁금하다.

이동은: 법의 무력함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고공에 오르고 광장을 향하는 현실을 몇 줄짜리 법문으로 정식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법이 현장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때, 나아가 법이 힘 없는 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공부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을 담는 학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터뷰·후기)를 듣거나 비법학 분야의 글을 싣고자 노력합니다.

곽한별: 노동법학회는 다른 공익 관련 학회/동아리와는 정체성이 조금 다릅니다. 노동인권보다는 노동법 자체에 관심이 있는 학회원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학회원 모두의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노동법 세미나에서는 관련 이슈도 함께 다루며, 노동문제 소모임에서는 법적 관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어떤 활동을 하든 "노동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학회 설립취지는 언제나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은세: 인권법학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을 옹호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공동체로서 법을 통한 인권 보장의 증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인권담론의 확산과 성평등 및 인권지평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술연구나 사회참여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권법학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생각과 관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양한 공익 및 인권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는 말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한 관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법학회에 다양한 의제에 대한 소모임이 여럿 있기도 한 만큼,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윤아: 프로보노는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모인 단체이지만, 그만큼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는 공익단체와의 협력이나 법교육 활동처럼 학생의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Q. 단체 운영 혹은 활동에 있어 공익 관련성이 주는 장점이나 어려움이라면?

이동은: 나아갈 지점·지향이 분명한 단체를 꾸려나가는 기쁨이 큽니다. "그늘에 가리어 희미하게 들리는 귀중한 목소리들을 발굴하고 권리의 언어로 번역"(통권 제13호 中)한다는 본지의 목표의식에 공감하는 동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곽한별: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바쁘고 힘든 로스쿨 생활 중에도 공익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에 대한 관심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보니, 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각 활동 참여 인원 예상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은세: 공익이라는 가치 자체는 많은 분들께 낯설지 않게 다가가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성원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익 관련성이 장점과 어려움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공익활동 지원 사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으로는 (공익 외 진로의 경우에는) 활동을 진로와 연결짓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윤아: 공익 단체라는 성격 덕분에 구성원들이 활동의 의미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학생 신분이다 보니 시간적·역량적 한계가 있고, 공익 활동의 특성상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운영에서는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작더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선우 학생기자

17기 곽한별, 홍윤아, 이은세, 이동은

동계공익법무실습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활동 인터뷰

17기 김기완

동계공익법무실습은 바쁜 겨울방학 사이에 진행되지만, 그만큼 강렬한 배움을 남기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김기완 참가자를 만나 그 경험을 들어보았다.

Q. 기관 선택 이유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선보조인 활동은 보조인의견서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볼 수 있다는 점, 변호사가 되더라도 경험하기 힘든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청소년인권 분야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경험해 보고 싶어 본 활동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본 활동에서는 국선보조인이 되어 보호소년 한 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면서도 그의 계도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국선보조인은 보호소년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접견을 통해 죄질과 반성 정도, 개선의 정을 파악하여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판 당일에는 변호인석에 앉게 되고, 직접 변론도 하여야 합니다.

국선보조 업무 외에도 소년사건 법정 방청이나, 6호 처분 시설견학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 소년보호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설 내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감명 깊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

보호소년과 접견을 한 날과 재판 당일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달리, 직접 일대일로 만나게 되었을 때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지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호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품행이 좋지 않은 청소년인 만큼,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재판 당일에는 짧은 변론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긴장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판사님의 배려로 같이 활동을 하는 팀원의 사건도 방청할 수 있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 결론을 내리기 쉬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세부적인 사정까지 알게 되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공익법무실습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재판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인 만큼, 법조인 생활의 편린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활동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는데, 지도변호사님이 많은 부분에서 조력을 해주셨음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작성, 보호소년과의 접견, 재판 출석까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활동이 마무리되었을 때 남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활동을 통해 어떤 법조인이 될지에 대해 더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된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장래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본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공익법무실습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재판이 끝난 후 회식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은 모두 "신청하기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활동을 고르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동계공익법무실습은 대회나 로펌 면접 일정으로 바쁜 겨울방학 중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개인 일정을 고려하여 활동을 고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활동을 고르는 것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승현 학생기자

학위논문, 로스쿨생도 쓸 수 있다

16기 홍제헌

로스쿨생도 졸업을 위해 실적심사물 대신 100페이지 내외의 석사학위논문을 낼 수도 있다. 학위논문의 길을 선택한 홍제헌 원우에게 '논문 쓰는 로스쿨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석사논문의 분야, 가능하면 주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홍진영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뇌영상 및 신경생리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 다루는 글입니다. 주로 전문법칙 적용에 관한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2. 논문을 쓰고 싶다 혹은 써야겠다는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는 신경과학 분야 연구를 하다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마음 한 켠에 미련이 남았는데, 마침 교내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에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미래연구자 포럼' 프로그램을 통해 석사학위논문을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형사법이 재미있으니 그 분야에서 논문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혀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채 2학년 1학기 초에 지도교수님께 무턱대고 연락을 드렸고, 교수님과 상의하던 중 꼭 쓰고싶은 주제가 생겨 논문 작성을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3. 논문 쓰시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실시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수험 생활 중에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논문을 써야 할지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형사법 지식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채 공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글에 반영하다 보니, 몇 달 전 쓴 글을 다시 읽었을 때 터무니없이 느껴져 글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도교수님께서 아낌없이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고, 가까운 동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아가며 글을 쓰고 있어 크게 괴로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4.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셨는지, 그리고 쓰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얼개는 며칠 전 미래연구자포럼 논문요지발표회를 준비하며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원고에 쓰일 문장을 본격적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산 중턱은 넘었다고 믿고 싶은데, 후반부 작업에 어느 정도 품이 들지 예측하기 어려워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논문을 쓰며 얻은 가장 큰 두 가지는, 하고 싶었던 말을 논문을 매개로 풀어내는 개운함 그리고 은사님과의 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외로 수험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문에 인용하기 위해 정리해둔 판례나 학설이 수험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예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며 느낀 궁금증을 논문을 쓰며 해결한 때도 많았습니다.

5.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논문을 완성하지 않은지라 다른 분들께 어떤 조언을 드리기는 민망하지만, 논문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원우님이 있으시다면 일단 도전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쓰는 것이 심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2년 내내 미련과 여러 궁금증이 남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100페이지 넘는 학위논문을 완성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선택과목 과제물이나 실적심사용 글로 가볍게 생각을 정리해보고 아쉬운 부분을 채워나가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선우 학생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2025년 서울법대 한마당

2025년 9월 2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앞 중앙광장에서 '2025년 법대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법과대학 창설 이래 지속되어 온 '법대한마당'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교수진, 직원 등 서울법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전통 행사이다. 이날 출장 뷔페 전문 인력들이 준비한 풍성한 바비큐와 함께 서울법대 구성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로 강의실에서 마주하던 교수와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또한, 평소 각자의 학업에 바쁜 로스쿨 1, 2, 3학년 학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2025년 9월 2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기념관 주산홀(84동 301호)에서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입장 확인용 문자를 받은 참석 대상자의 경우 문자 확인 후 입장하며, 미선정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현장참여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원장, 허성욱 교무부원장, 공두현 학생부원장 등 보직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 생활을 소개하고, 17년 간의 입학생 현황,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학년도 2학기 서울법대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5년 9월 24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8호에서 국제학생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국제학생지원센터 및 학생회의 간단한 학교 시설, 행정 등 소개 이후,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피자를 먹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스쿨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외국 학교 학부생, 박사과정 연구 펠로우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학교생활의 의지를 다졌다.

제14회 학생 홍보대사 임명식

2025년 10월 27일(월) 17동 2층 접견실에서 제14회 학생홍보대사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홍보대사로 임명된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구민지, 최다현, 허람, 황수빈 학생은 앞으로 1년간 입학설명회, 국제교류 외빈방문을 포함한 학교 행사를 지원한다. 임명식은 임명장 수여와 단체사진 촬영으로 진행되었다.

노혁준 교수,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

2025년 10월 31일(금) 노혁준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320호에서 개최되었다. 노혁준 교수는 〈회사법〉, 〈신탁법〉, 〈회사소송〉 등 상법 분야의 핵심 교과를 강의하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상법,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혁준 교수의 수업은 체계적이고 흡입력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큰 호평을 받아왔다. 노 교수는 실무와 이론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는 〈회사법〉 교과서 집필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한국거래소 규율위원회와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투명성과 규제 강화를 위해 기여하기도 하였다. 노혁준 교수는 기업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하며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며 법률과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대학교육 발전을 견인하고, 우수 교수법 확산 및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 개발 및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매년 학술연구교육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제6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개최

2025년 11월 10일(월)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6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가 개최되었다. 〈모의재판〉 과목을 수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분반별 예선을 거쳤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작년보다 많은 4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검사 측은 김예은 검사팀(김예은, 김혜진, 박경린, 임수현, 정인희), 조민제 검사팀(조민제, 박종민, 조현지, 하진명, 강신영)이, 변호인 측은 법무법인 수이팀(유각준, 김사빈, 김희중, 안민영, 이민채), 법무법인 이립 팀(김영탁, 안운기, 조윤수, 홍정수)이 결선에서 변론을 펼쳤다. 치열한 결전의 결과 대상은 김예은 검사팀이, 금상은 법무법인 이립팀이, 은상은 법무법인 수이 팀이, 동상은 조민제 검사팀이 수상하였다. 최우수변론상은 조민제 검사팀의 하진명 원우가 수상하였다. 이번 모의법정대회의 문제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화재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한 사안이었다. 피고인들의 과실범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재판장을 담당한 이상원 교수는 "네 팀 모두 변론을 잘 해서 1등을 뽑기 어려웠고, 계속 공부해서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김재형 교수와 권영준 대법관 역시 참가팀들을 칭찬하며 학생들에 대한 응원의 말을 전하였다.

2025년 가을맞이 점심

2025년 11월 11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 로비에서 '2025 가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생은 물론 교수진과 교직원들까지 서울법대 전 구성원이 한데 모여 자유롭게 오가며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종화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의 초청 연주가 진행되어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이재민 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가을 기운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기념 특별강연 - 노혁준 교수

2025년 11월 14일(금) 17동 서암홀에서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기념 특별강연이 열렸다. 강연회의 연사는 이번 해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한 노혁준 교수로 "우리는 법조인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노 교수는 '조금씩 나아지는 수업하기'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매년 수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에 관한 교육 경험을 공유하였다.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진행한 강의들과 교육적 도전 과정을 소개하며, 좋은 연구 주제를 찾아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법 이외의 다양한 시각을 수업에 담기 위한 노력과 가르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공동강좌 운영, 새로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리서치 프로젝트, legal tech 등의 경험도 공유하였다. 노 교수는 학생부학장(2011년)과 기획부처장(2019-2020년) 재임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육상은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인 노혁준 교수는 회사법, 신탁법 등을 강의하며, 실무와 이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회사법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또한, 노 교수는 다수의 학생 지도를 통해 우수한 학자 배출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제10회 학봉상 시상식 개최

2025년 12월 3일(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제10회 학봉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한다. 이번 학봉상은 눈문공모부문, 연구지원구분, 법학논문부문, 언론보도부문 네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다. 논문공모부문에서는 우수상 1편 및 장려상 3편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경은, 안혜경, 강희송(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전문연구원/전문연구원)의 "갈등 인식, 사회적 포용, 그리고 당사자성: 2013~2024년까지의 시계열적 변화 추적"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 밖에 하태현(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미디어문화연구 박사수료), 강혜진, 김다은(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석당인재학부 조교수), 차필립(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연구지원부문은 전대성, 박윤환(전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신재, 조은미, 이빈(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일반대학원 정치학과/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법학논문부문에서는 전국 법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 논문을 공모받은 결과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인 장효선(동아대 법전원)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CSS) 규제 방안 연구"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우수상은 정윤종, 박연정, 이윤하(서울대 법전원), 하흔수(성균관대 법전원)이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은 백인범, 김선규(서울대 법전원), 지승규, 송재호, 이승범(서울대 법전원), 조도윤, 김단아, 양희진, 유하연, 한도희(전남대 법전원)가 수상하였다. 언론보도 부문은 한일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보도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우수상 3건이 선정되었다. 이명덕, 이소정, 김효준, 황정연(BTN 불교TV)의 "특집 다큐멘터리 〈돌아온 관월당 100년의 문을 열다〉", 오예진, 맹서현, 임영희, 안효진(KBS 춘천)의 "다큐 〈교환여행 1945〉", 이시아 이 쓰토무(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의 "현장으로! 조선통신사에 거는 꿈"이 수상하여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시상 및 소감 발표 이후 제9회 학봉상 연구지원부문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정성조, 이희영, 김보미, 심기용의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정민석, 조은미, 박지영의 "여성의원의 여성대표성에 관한 연구: 제17대-제21대 국회 여성법안 발의 및 표결을 중심으로"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202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5년 12월 17일(수)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전문석사과정)의 입학을 환영하는 이날 행사는 이재민 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약 한 시간 동안 공두현 학생부원장, 김정민 학생지원실장의 교과과정 및 학생생활 안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홍보대사와 학생회의 학교생활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후 학생회 주관으로 학내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이 조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조별로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판사 주홍점·홍계수 세미나실 현판식

2026년 1월 28일(수) 우천관 305호에서 판사 주홍점·홍계수 세미나실에서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2학번인 주경숙 여사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법조인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부모님을 기리는 '판사 주홍점·홍계수 기금' 2억 원을 기부하

였다.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날 현판식에서 우천관 305호 세미나실을 판사 주홍점·홍계수 세미나실로 명명하였다. 행사에는 공두현 학생부원장, 이재민 원장,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전종익 소장, 교육지원센터 이동진 센터장,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조동은 부센터장,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전문위원인 이상훈 교수 및 고명수 교수 등 여러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공두현 학생부원장의 개회사 이후 이재민 원장의 감사패 전달과 감사 인사가 있었고, 기부자인 주경숙 여사 또한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세미나실 명판의 가림막을 제막하는 제막식 및 기념 촬영도 진행되었다. 공두현 학생부원장은 "기부금을 앞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성 신한은행 본부장, '이성구 여사 장학기금' 1억 원 기부

2026년 2월 9일(월)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는 송재성 신한은행 본부장과 모친 이성구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식이 열렸다. 송재성 신한은행 본부장은 모친 이성구 여사의 뜻을 담아,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에 '이성구 여사 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이와 함께 송재성 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 'AI 연구원 기금' 1천만 원과 '창업 지원기금' 1천만 원도 출연하였다. 송재성 본부장은 2025년 법조타운 지점장으로 재직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의 활동 등을 경험했고, 학문과 지성의 요람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응원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하였다. 이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유홍림 총장,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장, 천경훈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장 등 교내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감사패 및 고지도 증정,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과 연구, 창업 등 대학의 핵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송재성 본부장은 "20년 연속 기부하고, 은퇴 후 나눔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유홍림 총장은 "본부장님과 어머니의 귀한 뜻이 학생과 연구자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기금을 운영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26년 2월 26일(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학위수여식은 이재민 원장의 축사와 허성욱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로 시작되었다. 강용현 서울법대 동창회장의 축사와 졸업생 대표 2인의 답사 후 참석 졸업생에 대한 학위 수여와 상장 수여가 진행되었다. 이재민 원장은 졸업생들에게 꿈을 잊지 말고 살며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14기 김인서 졸업생은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도 학교에서의 치열한 순간들이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스승과 동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연구소·센터 소식

공익법률센터, '제3자 녹음 금지와 학대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성료

2025년 9월 25일(목)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공동으로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장애 아동 학대 사건에서 보호자가 설치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판결을 계기로,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약자들의 권리 구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봉의 공익법률센터장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선언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재왕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3자 녹음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기준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고광민 변호사는 "법의 기계적 적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익법률센터, 제7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사전교육(Boot Camp) 개최

2025년 12월 19일(금)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제7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예비 법조인들이 공익적 가치를 함양하고 현장 실무를 경험하는 필수 교육과정이다. 이번 사전교육에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홍성수 교수의 특강을 통해 법률가의 사명과 차별·혐오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였다. 오후에는 법률구조, 장애, 이주난민, 소비자권리, 젠더, 시민사회 등 6개 분야별 분반 강의가 이어져 실제 현안을 바탕으로 한 실무 감각을 익혔다. 사전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2026년 1월부터 두 달간 36개 협력 기관에 배치되어 실무 수습을 진행하며, 2월 말 결과 보고 대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현장의 실무경험을 통해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거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대만 법관연수원 방문단 접견

2025년 11월 3일(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관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대만 법관연수원(法官學院) 방문단을 접견하였다. 방문단은 법관연수원장인 장승성(張升星) 원장, 연수원 연구발전처 처장 료혜여(廖慧如) 판사 및 3명의 업무수행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생 여가림(呂佳霖) 대만 변호사가 통역을 위해 동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측에서는 정준혁 부소장과 오영걸 교수가 방문단을 맞이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공두현 교수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만 법관연수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협력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향후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MOU 체결 의지를 공유하였다.

교육지원센터, 2025년 교육펠로우 신규 임용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수 교수) 교육펠로우 신규 임용이 이루어졌다. 류혜비 펠로우(변시 10회)는 서울대 경제학부 및 미학과와 서울대 법전원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서지별 펠로우(변시 10회)는 서울대 윤리교육과와 연세대 법전원을 졸업하고 서울서부지법 및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근무했다. 임서영 펠로우(변시 10회)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및 경제학과와 서울대 법전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 및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홍서현 펠로우(변시 10회)는 서울대 불어교육과 및 경영학과와 서울대 법전원을 졸업하고 부산지법 및 부산고법 재판연구원을 거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근무했다. 신규 교육펠로우는 1학년 펠로우세션, 3학년 실무연습 강의 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센터, 2026년 단기연구조교 신규 채용

2026년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수 교수) 단기연구조교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다. 단기연구조교는 2026년 2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모집대상으로 하며 총 7명(고영균, 김성윤, 김지훈, 신동규, 임상오, 지승규, 진덕규)이 선발되었다. 신규 단기연구조교는 5월까지 재학생 학업 및 변시 준비를 포함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튜터링과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6기 SNU Law 연구자포럼 및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출범

2025년 11월 22일(토) 우천법학관에서 서울법대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가 주최하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6기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실무가 및 잠재적 연구자들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6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 출범식에서, 천경훈 교수는 법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연구자포럼에 참여하게 된 연구자들을 축하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자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격려했다. 헌법, 법사회학, 법철학, 국제법, 상법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포럼 참가자들은 1년 동안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1월 17일(토) 같은 센터가 주최하는 2026년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이는 졸업 필수요건이 아님에도 학문적 관심에서 자발적으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약 2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졸업한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연구 의지를 새로이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출신 연구자 교수 임용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 출신 연구자의 교수 임용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를 지원하는 SNU Law 연구자포럼을 거쳐간 연구자 중에서는 2026년 1학기 본교에 부임하게 된 김선화(2기 및 4기) 교수를 비롯하여 김신영(1기, 전남대 법전원), 고유강(1기, 서울대 법전원), 정의진(2기, 이화여대 법전원), 송지민(2기 및 4기, 경기대 법학과), 이진형(2기, 영남대 법전원), 서경미(3기, 성균관대 법전원), 이무룡(3기, 서울대 법전원), 문준혁(1기 및 5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 등이 학계로 진출하였다. 박사후연구원 출신 이다혜 교수(한동대 법학부)와 이연 교수(중국화동정법대), 연구펠로우 출신인 박건우 교수(영남대 법전원)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1학기 본교 공익법률센터 임상조교수로 부임하는 이수진, 김정민 교수도 각각 연구자포럼(1기) 및 연구펠로우 출신이다.

공익산업법센터, 제104회 학술세미나 개최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2025년 10월 24일(금)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와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발표를 맡고,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윤성옥 교수(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성욱제 박사(KISDI),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전원), 이창현 교수(서강대 법전원), 성석함 부사장(SKT),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금융법센터, 제5회 BFL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센터장 노혁준)는 2025년 11월 10일(월) 법무법인 화우에서 제5회 BFL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윤영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와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발표를 맡았고, 센터 소속 교수와 법무법인 소속의 실무자, 그리고 신진교수가 참여하여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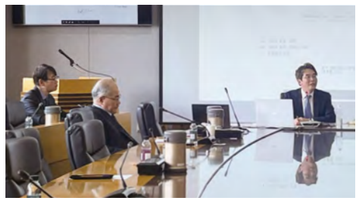
법이론연구센터,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 발표 및 〈기초법학연구〉 제5호 원고 모집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025년 2월 13일(금)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으로, 법이론연구센

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공동 이사장 윤세리·이인용)이 후원하고 있다. 법이론연구센터는 2025년도에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였다. 다양한 기초법학 분야에서서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출품되었고, 논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도균 교수)는 2025년 11~12월 예심과 2026년 1월 본심을 거쳐 다음과 같이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대상(상금 300만 원)에 최대한(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의 〈우리 대법원의 판례 변경: Mark Greenberg의 눈으로 읽기—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에 관하여〉가 선정되었고, 우수상(상금 100만 원)에는 김민석(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해석의 포섭: 헤겔의 변증법적 추리론의 법철학적 함의〉가 선정되었다. 장려상(상금 50만 원, 가나다 순)은 박지성(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법의 정치화'는 존재하는가—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루만적 해석을 중심으로〉, 신준석(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의 〈탈노동 시대에서 헌법상 휴식권의 개념적 재구성을 위한 제언〉, 장다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누가 언제 권리를 갖는가: 하이브리드이론을 중심으로 본 청구권의 귀속〉이 각각 선정되었다. 심사를 총괄한 김도균 센터장은 "올해 응모한 기초법학 논문상 심사대상 중에는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시대의 변화를 고찰한 논문이 많았다"고 총평하였다. 그리고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되면서, 실정법에 한정된 문제의식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젠더법학 등의 기초법학이 많은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학문후속세대가 기초법학의 지혜를 이어받아 학문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격려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이론연구센터는 논문상 수상작을 포함, 기초법학 분야의 신진 연구 장려를 위해 매년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 5월에 발간될 제5호 수록 논문을 2026년 3월 1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문의 및 원고제출: 법이론연구센터 legaltheory@naver.com)

법학연구소, 2025년 2학기 「법과 문화 포럼」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9월 17일에는 이관휘 교수(서울대 경영대학(원))가 "Bubble, Crash and Efficient Market"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9월 24일에는 이문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트럼프 2.0,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1일에는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법의 규범성, 형이상학적 전회, 그리고 칸트"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22일에는 백진 교수(서울대 건축학과)가 "정의와 도시: '균형의 감각'과 '시적(詩的) 법정'으로서의 도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29일에는 이민열 교수(국립 방송대 법학과)가 "명확성의 원칙에 무엇이 걸려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5일에는 장원철 교수(서울대 통계학과)가 "바보야, 문제는 데이터야!-AI 시대, 법조인이 갖춰야 할 통계적 사고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12일에는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연속성과 차별성-헌법재판관 6년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19일에는 김은영 교수(서울대 의대)가 "마음을 살리는 뇌 회복의 기술: (부제) 마음의 기초체력을 위한 휴식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법학연구소, 2025학년도 공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다양한 주제의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연달아 개최하였다. 먼저 2025년 12월 19일(금) "인권침해 심사와 구제에 대한 다면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신윤진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비롯하여 최계영 교수, 원유민 교수, 신유민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1월 29일(목)에는 "형사법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홍진영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비롯하여 이우영 교수, 고명수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 외부연구진인 김상오 변호사(김앤장)가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2월 11일(수) "헌법의 개정: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전상현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비롯하여 이효원 교수, 전종익 교수, 조동은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가 발표하였다.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 개최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2025년 12월 1일(월)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2층 그랜드홀에서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공동 주최로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 리스크 분석의 고도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상호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세션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기후공시제도 현황'으로, 싱가포르, 대만, 중국&홍콩, 일본, 한국의 전문가가 차례대로 각국의 기후공시 제도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있었다. 제2세션은 '기후리스크와 투자: 금융시장의 대응과 공시의 역할 세션'으로, 투자·보험·회계 등 금융 생태계 전반에서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적인 측면을 다루는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기후금융의 잠재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은 투자자와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부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계획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이상훈 교수

국가론

서양 고대 정치철학 전공자에 의한 키케로 국가론(De re publica)의 새 번역이 나왔다. 국가론은 공화정 말기 로마의 정치적 혼란을 배경으로 최선의 정체(政體)가 무엇인지를 대화체로 논구한 저술이다. 키케로는 국가는 "인민의 것"이며, 인민은 "법에 대한 동의와 유익의 공유로 하나가 된 다수의 모임"이라고 정의한 후(1.39), 최선의 정체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적절히 혼합된 것이라는 이른바 혼합정체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로마가 그러한 최선의 정체라는 점을 로마의 역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전체 6권 중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지만,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키케로의 정치사상을 공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키케로/임성진 역 | 부클래식 | 2025

고대법

1861년 초판이 발간되고, 1888년 최종판(제12판)이 출간된 고대법은 설명이 필요 없는 고전이고 명저에 속한다. 고대법이 19세기 영국의 지성사를 넘어 법학은 물론 사회학 및 인류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고대법은 사회초기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으면 근대 관념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아울러 이 번역서에는 프레더릭 폴록의 소개말과 함께 부록으로 메인의 다른 저서인 〈초기 제도사〉에 실린 "주권"과 "주권과 제국"이라는 두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공법의 거시사와 함께 오스틴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있다. 원시가부장제 이론 등의 몇 가지 오류들은 그 후 극복되었지만, 이 책을 통해 법의 역사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헨리 섬너 메인/김도현 역 | 박영사 | 2023

유럽법약사

저자인 하버드 대학교 겸임교수인 타마르 헤어초그는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남미 역사를 전공하였다. 이 책은 부제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고대에서 중세, 근대를 거쳐 19세기 법전편찬 시기,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진행되어 온 유럽법 통합에 이르는 2500년의 유럽법 역사를 시대별로 잘 정리하면서, 영미법의 역사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대륙법과 영국의 코먼로가 별개라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제8장 "코먼로의 위기와 재창조"는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영국 코먼로의 발전 과정을 매우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장 "북아메리카의 발전"과 제13장 "코먼로의 법전화"는 다른 서양법제사 책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서 기초적인 법사학 지식을 쌓기에 유익한 책으로 추천한다.

타마르 헤어초그/이영록 옮김 | 민속원 | 2023

휴버트 드레이퍼스

이 책은 미국의 철학자 휴버트 드레이퍼스(1929~2017)의 AI 지성과 인간 지성에 관한 철학적 반성 작업으로 이른바 '인공이성비판'을 다룬다. 그는 20세기 유럽의 주요 철학 사조인 현상학의 관점에서 AI 연구의 실패 원인을 지적한다. 즉 당시까지의 AI 연구는 서양철학 전통이 전제해 온 지성관으로, 명시적이고 단속적인 요소들 사이에 규칙을 차례로 적용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순수한 정신적 능력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드레이퍼스는 현상학적 주체관을 통해 인간 지성의 본질이 그와 같은 계산능력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인간의 지성은, 순수한 정신적 능력이 아니라 신체와 결부된 능력이며, 단순히 정해진 목표를 따르지 않고 창조적으로 목적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20세기 후반의 고전적 AI 유형(GOFAI)에 기반하고 있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경망 AI에 대해서도 여전히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최일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 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1. 세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 네이밍 예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3.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만 원(1구좌)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1. 온라인 기부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 http://secure.donus.org/snulaw
     -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연결 됩니다.
  2. 전화·이메일
     - 전화. 02.880.2448
     - 이메일. lawgiving@snu.ac.kr
     - 카카오채널. snulawfund

Next Decade 기금(발전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15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5. 9. 1. — 2026. 2. 28.

감사후원	30,000	2025.09.02
감사후원	30,000	2025.09.04
감사후원	30,000	2025.09.07
강윤구	10,000	2025.09.08
김다연	30,000	2025.09.08
김연각	10,000	2025.09.08
김정민	10,000	2025.09.08
김준영	50,000	2025.09.08
김지수	10,000	2025.09.08
김현희	10,000	2025.09.08
김효준	10,000	2025.09.08
박상록	10,000	2025.09.08
박은정	10,000	2025.09.08
박정현	30,000	2025.09.08
박종성	13,819,334	2025.09.08
박진호	10,000	2025.09.08
배수호	30,000	2025.09.08
배수호	50,000	2025.09.08
법률사무소 탑 (이윤진)	10,000	2025.09.08
석소현	10,000	2025.09.08
오태욱	100,000	2025.09.08
윤아현	10,000	2025.09.08
이종준	10,000	2025.09.08
이창규	10,000	2025.09.08
이현선	50,000	2025.09.08
정철호	10,000	2025.09.08
홍지의	10,000	2025.09.08
이의영	30,000	2025.09.10
한화비전 주식회사	13,000,000	2025.09.10
한화생명보험(주)	13,000,000	2025.09.10
한화손해보험(주)	13,000,000	2025.09.10
감사후원	30,000	2025.09.11
이혜수	10,000	2025.09.11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13,000,000	2025.09.11
한화토탈 주식회사	13,000,000	2025.09.11
(주)한화	13,000,000	2025.09.12
한화솔루션(주)	13,000,000	2025.09.12
한화투자증권	13,000,000	2025.09.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13,000,000	2025.09.16
감사후원	30,000	2025.09.17
익명	30,000	2025.09.18
이경준	100,000	2025.09.22
한화시스템(주)	13,000,000	2025.09.22
강한	1,000,000	2025.09.25
김하영	50,000	2025.09.25
방윤섭	5,000	2025.09.25
유홍수	100,000	2025.09.25
윤성조	1,000,000	2025.09.25
전일호	10,000	2025.09.25
감사후원	30,000	2025.09.26
익명	30,000	2025.09.30
감사후원	30,000	2025.10.02
천경훈	1,000,000	2025.10.02
임병록	1,000,000	2025.10.03
김성은	1,000,000	2025.10.07
이의영	30,000	2025.10.10
오정한	2,000,000	2025.10.11
감사후원	30,000	2025.10.13
강윤구	10,000	2025.10.13
김다연	30,000	2025.10.13
김연각	10,000	2025.10.13
김정민	10,000	2025.10.13
김준영	50,000	2025.10.13
김지수	10,000	2025.10.13
김효준	10,000	2025.10.13
박상록	10,000	2025.10.13
박은정	10,000	2025.10.13
박정현	30,000	2025.10.13
박진호	10,000	2025.10.13
배수호	30,000	2025.10.13
배수호	50,000	2025.10.13
법률사무소 탑 (이윤진)	10,000	2025.10.13
석소현	10,000	2025.10.13
오태욱	100,000	2025.10.13
윤아현	10,000	2025.10.13
이종준	10,000	2025.10.13
이창규	10,000	2025.10.13
이현선	50,000	2025.10.13
정철호	10,000	2025.10.13
홍지의	10,000	2025.10.13
익명	30,000	2025.10.15
이경준	100,000	2025.10.20
이혜수	10,000	2025.10.21
이행규	1,000,000	2025.10.22
감사후원	30,000	2025.10.24
김하영	50,000	2025.10.27
방윤섭	5,000	2025.10.27
유홍수	100,000	2025.10.27
이태관	500,000	2025.10.27
전일호	10,000	2025.10.27
감사후원	30,000	2025.10.28
임한준	1,000,000	2025.10.28
한상호	500,000	2025.10.28
김연미	1,000,000	2025.10.29
송충열	1,000,000	2025.10.29
이상화	500,000	2025.10.29
천기성	1,000,000	2025.10.29
감사후원	30,000	2025.10.31
김태식	500,000	2025.10.31
세종/김병태	1,000,000	2025.10.31
이상원	500,000	2025.10.31
임창훈	500,000	2025.10.31
정소민	500,000	2025.10.31
권두영	500,000	2025.11.01
김강대	500,000	2025.11.01
이시원	500,000	2025.11.01
정석종	500,000	2025.11.01
감사후원	30,000	2025.11.03
강윤구	10,000	2025.11.03
김다연	30,000	2025.11.03
김연각	10,000	2025.11.03
김정민	10,000	2025.11.03
김준영	50,000	2025.11.03
김지수	10,000	2025.11.03
김현희	10,000	2025.11.03
박상록	10,000	2025.11.03
박은정	10,000	2025.11.03
박진호	10,000	2025.11.03
배수호	30,000	2025.11.03
배수호	50,000	2025.11.03
법률사무소 탑 (이윤진)	10,000	2025.11.03
석소현	10,000	2025.11.03
오태욱	100,000	2025.11.03
윤아현	10,000	2025.11.03
이종준	10,000	2025.11.03
이창규	10,000	2025.11.03
이현선	50,000	2025.11.03
이혜수	10,000	2025.11.03
정철호	10,000	2025.11.03
홍지의	10,000	2025.11.03
감사후원	30,000	2025.11.09
이의영	30,000	2025.11.10
감사후원	30,000	2025.11.12
김효준	10,000	2025.11.12
익명	30,000	2025.11.13
이경준	100,000	2025.11.20
익명	30,000	2025.11.21
김하영	50,000	2025.11.25
방윤섭	5,000	2025.11.25
유홍수	100,000	2025.11.25
전일호	10,000	2025.11.25
감사후원	30,000	2025.11.27
감사후원	30,000	2025.11.28
감사후원	30,000	2025.12.02
주경숙	200,000,000	2025.12.02
김현희	10,000	2025.12.03
김효준	10,000	2025.12.03
강윤구	10,000	2025.12.05
김다연	30,000	2025.12.05
김연각	10,000	2025.12.05
김정민	10,000	2025.12.05
김준영	50,000	2025.12.05
김지수	10,000	2025.12.05
박상록	10,000	2025.12.05
박은정	10,000	2025.12.05
박진호	10,000	2025.12.05
배수호	50,000	2025.12.05
배수호	30,000	2025.12.05
법률사무소 탑 (이윤진)	10,000	2025.12.05
석소현	10,000	2025.12.05
오태욱	100,000	2025.12.05
윤아현	10,000	2025.12.05
이종준	10,000	2025.12.05
이창규	10,000	2025.12.05
이현선	50,000	2025.12.05
정철호	10,000	2025.12.05
홍지의	10,000	2025.12.05
감사후원	30,000	2025.12.08
감사후원	30,000	2025.12.10
이의영	30,000	2025.12.10
고소영	35,000	2025.12.11
김덕현	105,000	2025.12.11
김동윤	35,000	2025.12.11
김동현	35,000	2025.12.11
김소연	35,000	2025.12.11
김연두	70,000	2025.12.11
김정은	70,000	2025.12.11
김지수	35,000	2025.12.11
김찬호	35,000	2025.12.11
김태은	140,000	2025.12.11
김현정	70,000	2025.12.11
김혜원	35,000	2025.12.11
나인경	35,000	2025.12.11
남지혁	105,000	2025.12.11
박예원	35,000	2025.12.11
백대열	35,000	2025.12.11
성하경	35,000	2025.12.11
손지환	35,000	2025.12.11
송기우	210,000	2025.12.11
신재국	35,000	2025.12.11
심민정	105,000	2025.12.11
유지수	35,000	2025.12.11
윤휘	35,000	2025.12.11
이송하	35,000	2025.12.11
이연하	70,000	2025.12.11
이영주	35,000	2025.12.11
이온달	35,000	2025.12.11
이지윤	70,000	2025.12.11
임은지	35,000	2025.12.11
전혜연	35,000	2025.12.11
천기섭	70,000	2025.12.11
최승혁	35,000	2025.12.11
최효재	35,000	2025.12.11
허유진	35,000	2025.12.11
한동희	35,000	2025.12.11
홍규민	35,000	2025.12.11
강성구	70,000	2025.12.12
강성익	35,000	2025.12.12
강윤구	35,000	2025.12.12
강준모	35,000	2025.12.12
고윤아	35,000	2025.12.12
고현진	70,000	2025.12.12
김경수	35,000	2025.12.12
김다연	105,000	2025.12.12
김말금	35,000	2025.12.12
김병국	70,000	2025.12.12
김보연	35,000	2025.12.12
김유정	35,000	2025.12.12
김지언	70,000	2025.12.12
김태준	35,000	2025.12.12
김현정	105,000	2025.12.12
문민영	70,000	2025.12.12
문영찬	35,000	2025.12.12
박동준	105,000	2025.12.12
박민철	35,000	2025.12.12
배기환	35,000	2025.12.12
송화	35,000	2025.12.12
신용식	70,000	2025.12.12
안치웅	105,000	2025.12.12
유창준	35,000	2025.12.12
이규철	35,000	2025.12.12
이동명	70,000	2025.12.12
이소민	35,000	2025.12.12
이유미	70,000	2025.12.12
이현성	35,000	2025.12.12
이현아	35,000	2025.12.12
임서영	35,000	2025.12.12
임종찬	35,000	2025.12.12
정재언	50,000	2025.12.12
정현석	35,000	2025.12.12
정혜라	35,000	2025.12.12
조현석	35,000	2025.12.12
지승민	35,000	2025.12.12
최지아	30,000	2025.12.12
탁수진	35,000	2025.12.12
형은성	35,000	2025.12.12
감사후원	30,000	2025.12.13
김현지	35,000	2025.12.13
박진재	50,000	2025.12.13
강성윤	105,000	2025.12.14
김시온	35,000	2025.12.14
이현경	35,000	2025.12.15
강혜원	70,000	2025.12.16
구현정	35,000	2025.12.16
김효정	350,000	2025.12.16
노호경	105,000	2025.12.16
신준규	35,000	2025.12.16
임규선	70,000	2025.12.16
장재윤	105,000	2025.12.16
최석원	35,000	2025.12.16
홍승희	35,000	2025.12.16
감사후원	30,000	2025.12.18
이현선	35,000	2025.12.18
감사후원	30,000	2025.12.19
김근호	105,000	2025.12.19
신주영	35,000	2025.12.19
오종환	35,000	2025.12.19
이용현	70,000	2025.12.19
이윤성	105,000	2025.12.19
유정민	70,000	2025.12.20
김동길	35,000	2025.12.21
류재현	1,000,000	2025.12.21
고대웅	35,000	2025.12.22
곽민식	35,000	2025.12.22
김동현	35,000	2025.12.22
김민영	70,000	2025.12.22
김중호	70,000	2025.12.22
김지원	35,000	2025.12.22
남윤종	35,000	2025.12.22
박나연	35,000	2025.12.22
박서연	70,000	2025.12.22
안주연	70,000	2025.12.22
안지영	35,000	2025.12.22
오재완	140,000	2025.12.22
오지원	35,000	2025.12.22
원지희	70,000	2025.12.22
이경준	100,000	2025.12.22
이경훈	35,000	2025.12.22
이윤서	70,000	2025.12.22
이지은	70,000	2025.12.22
이태성	35,000	2025.12.22
이휘준	70,000	2025.12.22
정현찬	50,000	2025.12.22
최민서	35,000	2025.12.22
하성창	35,000	2025.12.22
김석헌	35,000	2025.12.23
김지우	140,000	2025.12.23
김현우	35,000	2025.12.23
송현정	105,000	2025.12.23
송형근	35,000	2025.12.23
이예지	35,000	2025.12.23
이은현	70,000	2025.12.23
장재훈	70,000	2025.12.23
정승기	70,000	2025.12.23
최유일	35,000	2025.12.23
최정호	35,000	2025.12.23
한용훈	70,000	2025.12.23
감사후원	30,000	2025.12.24
경준서	35,000	2025.12.24
감사후원	30,000	2025.12.26
감사후원	30,000	2025.12.26
김하영	50,000	2025.12.26
방윤섭	5,000	2025.12.26
유홍수	100,000	2025.12.26
전일호	10,000	2025.12.26
감사후원	30,000	2025.12.29
안현재	105,000	2025.12.29
정한솔	35,000	2025.12.29

감사후원	30,000	2025.12.31
김하영	50,000	2025.12.31
경준서	35,000	2026.01.02
감사후원	30,000	2026.01.04
감사후원	30,000	2026.01.06
강윤구	10,000	2026.01.06
김다연	30,000	2026.01.06
김연각	10,000	2026.01.06
김정민	10,000	2026.01.06
김준영	50,000	2026.01.06
김지수	10,000	2026.01.06
박상록	10,000	2026.01.06
박은정	10,000	2026.01.06
박진호	10,000	2026.01.06
배수호	30,000	2026.01.06
배수호	50,000	2026.01.06
법률사무소 탑 (이윤진)	10,000	2026.01.06
석소현	10,000	2026.01.06
오태욱	100,000	2026.01.06
윤아현	10,000	2026.01.06
이종준	10,000	2026.01.06
이창규	10,000	2026.01.06
이현선	50,000	2026.01.06
정철호	10,000	2026.01.06
정한솔	105,000	2026.01.06
홍지의	10,000	2026.01.06
감사후원	30,000	2026.01.08
김하영	50,000	2026.01.08
김하영	50,000	2026.01.08
김하영	50,000	2026.01.12
김하영	50,000	2026.01.12
김현희	10,000	2026.01.12
김현희	10,000	2026.01.12
김효준	10,000	2026.01.12
김효준	10,000	2026.01.12
이의영	30,000	2026.01.12
감사후원	30,000	2026.01.19
이경준	100,000	2026.01.20
이혜수	10,000	2026.01.21
감사후원	30,000	2026.01.22
감사후원	30,000	2026.01.23
방윤섭	5,000	2026.01.26
유홍수	100,000	2026.01.26
전일호	10,000	2026.01.26
이범재	1,000,000	2026.02.01
감사후원	30,000	2026.02.03
강윤구	10,000	2026.02.06
김다연	30,000	2026.02.06
김연각	10,000	2026.02.06
김정민	10,000	2026.02.06
김준영	50,000	2026.02.06
김지수	10,000	2026.02.06
박상록	10,000	2026.02.06
박은정	10,000	2026.02.06
박진호	10,000	2026.02.06
배수호	30,000	2026.02.06
배수호	50,000	2026.02.06
법률사무소 탑 (이윤진)	10,000	2026.02.06
석소현	10,000	2026.02.06
오태욱	100,000	2026.02.06
윤아현	10,000	2026.02.06
이종준	10,000	2026.02.06
이창규	10,000	2026.02.06
이현선	50,000	2026.02.06
정철호	10,000	2026.02.06
홍지의	10,000	2026.02.06
감사후원	30,000	2026.02.08
이의영	30,000	2026.02.10
ALP 39기	30,000,000	2026.02.12
김하영	50,000	2026.02.12
김하영	50,000	2026.02.12
김현희	10,000	2026.02.12
김현희	10,000	2026.02.12
김효준	10,000	2026.02.12
김효준	10,000	2026.02.12
감사후원	30,000	2026.02.13
이경준	100,000	2026.02.20
재단법인 일우재단	100,000,000	2026.02.20
감사후원	30,000	2026.02.21
감사후원	30,000	2026.02.24
방윤섭	5,000	2026.02.25
유홍수	100,000	2026.02.25
전일호	10,000	2026.02.25

* 기부정보는 기부자의 익명약정 요청 및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흉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미술관,박물관,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정의의 종 43호
http://law.snu.ac.kr